

“종교계 자발적 지지 의사 협오·차별 규정 ‘사실왜곡’”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 측, “정치 공세 멈춰야”... 전북교육연대 비판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전북교육연대의 성명을 강하게 반박하며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선대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종교계의 자발적 지지 의사를 협오와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에 해당하며, 후보의 인격을 훼손하는 이념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비판은 특정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선대위는 상대 후보인 전호성 예비후보를 겨냥해 상습 표절 의혹과 허위 이력 기재 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한 검증 없이 상대 후보 비방에 집중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남호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공직 임용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검증과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점을 강조하며 이미 공직 검증을 통과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연구원장 재직 시절 제기된 ‘연구 성과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한 기관장 역할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부당한 문제 제기라고 반박했다. 종교단체 지지와 관련해서는 교육현장의 수용성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한 신중한 입장 표명일 뿐이며, 이를

‘협오와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적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집중적 결국 도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연대와 이남호 후보 측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책 경쟁보다는 상호 비판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상근 기자



27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진과 한화시스템 임원진이 함께하는 ‘첨단 방산기술 교류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한화시스템, 첨단 방산기술 협력 본격화

첨단방산학과 교수진-기업 임원진 간 기술교류 세미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7일 교내에서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진과 한화시스템 임원진이 함께하는 ‘첨단 방산기술 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신학 간 실질적 기술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 및 인재 양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대학교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진을 비롯해 전북대학교 국방산업연구소 장원준 부소장 한화시스템 해양연구소 홍윤석 소장 등

주요 관계자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기반 국방 시스템 △무인·자율체계 △해양·유무인 복합체계(MUM-T) △국방 데이터 및 네트워크 중심전 △첨단 센서 및 전자·통신 기술 등 미래 방산 핵심 분야에 대한 기술 동향과 협력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한화시스템 측은 해양 무인체계 및 국방전자 분야의 연구개발 방향을 소개하고, 전북대학교는 첨단 기술과 방산정책을 융합한 교육·연구 모델을 공유하며 신학 공동 연구 및 인재 양성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는 올해 국내 최초로 학부 과정인 ‘첨단방위산업학과’를 신설하고, 글로벌 방산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K-방산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본 세미나를 주도한 전북대 국방산업연구소 이병권 수석연구위원(전 해군 군수시령관)은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기업·대학·연구소 간 공동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공동 연구과제 발굴, 신학 프로젝트 및 인턴십, 채용 연계형 방산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 교원 화합 다지기... 전북교총, 교육공로자 표창·교원 배구대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지난 25일 전주교육대학교 체육관과 보조경기장에서 ‘교육공로자 표창식 및 전북교총회장배 교원 배구대회’를 열고 교육공로자에 대한 감사와 교원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1부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교원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특별공로상은 박진홍 김제고 교감, 독지상은 한동일 전주관광호텔꽃심 대표이사, 각각 수상했다. 30년 교육공로상은 총 104명에게 수여됐으며, 이태욱 여산초 교사가 대표로 표창을 받았다. 우수 학교분회 표창은 전주교대군산부설초등학교와 배영고등학교가 받았고, 도교육감 표창은 강석원 배영중 교사 등 27명이 수상했다. 이어 열린 2부 교원 배구대회에는 도내 14개 시·군 교총 선수단이 참가해 예선리그와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펼쳤다. 일반부에서는 고창교총이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를 기록했고, 전주교총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부 우승은 정읍교총, 패자부 우승은 군산교총이 각각 차지했다.



지난 25일 전주교육대학교 체육관과 보조경기장에서 ‘교육공로자 표창식 및 전북교총회장배 교원 배구대회’가 열렸다.

장지성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교원들의 헌신에 존경을 표하며, 이번 행사가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화합을 북돋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표창은 개인의 성과를 넘어 교육 현장을 지켜온 시간을 공동체가 예우하는 자리”라며 “배구대회 역시 승패를 넘어 교원들이 함께 웃고 응원하며 다시 교실로 돌아

갈 힘을 얻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원과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앞으로도 교육공로자 예우와 교원 공동체 화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1인 1예술·1체육’ 교육 확대

전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전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각자 예술과 스포츠 분야에서 최소 한 가지 취미를 갖도록 지원하는 ‘1인 1예술·1체육’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즐기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품성과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



선화할 계획이다. 또 초등 저학년과 저체력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

그램을 강화하고, 예체는 교육의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지원해 기초체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 예비후보는 “기초체력 책임 교육과 함께 독서, 예술, 체육이 어우러진 균형 잡힌 학교 교육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문계고 학생 중 예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공립형 예능교육 위탁학교’를 설립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오상근 기자

교육행정기관 평가 체계 전면 개편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평가도 새로 도입

서열화 폐지하고 분석·환류 중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직속기관 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도교육청은 27일 교육행정 역량 진단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 정착과 기관 운영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2026년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평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별도 평가 체계가 없었던 직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도교육청 핵심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성과관리의 시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는 기관 자체 정량평가와 도교육청 주관 정성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동시에 현장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신규 평가 도입에 따른 기관별 역량 강화를 위해 전·현직 교수와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지표 설계 자문을 맡아 오는 30일까지 운영된다. 교육지원청 평가는 지난 2024년부터 도입돼 지역 규모와 교육 여건을 고려한 2개 그룹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 지표는 AI 미래인재 양성, 공교

육 강화, 책임교육·돌봄 학교 공동체 회복 등 4개 영역 1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우수·우수기관 선정이 폐지된다. 기관 간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과 환류 중심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실질적인 개선과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 체계 개편이 공정하고 일관된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화 정책기획과장은 “평가는 경쟁이 아닌 개선과 성장을 위한 도구”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지원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 수립과 사업 개선에 반영해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2026년 행동강령책임관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10주년... 청렴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2026년 행동강령 책임관 등 청렴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전주 학생교육문화관에서 ‘2026년 행동강령 책임관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현장의 청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교육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 대행을 비롯해 기관 및 학교에서 행동강령책임관을 맡고 있는 총무과장, 행정지원과장, 교(원)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한편 권익위와의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육은 청탁금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적용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권익위 전문관이 주요 관례와 유권해석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메신저와 문자, 소셜미디어 등 최신 소통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적용상의 혼선과 쟁점에 대해 직접 설명이 이뤄지며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이 행동강령 책임관의 반부패 정책 이행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초·중·고생 대상 찾아가는 평화공존교육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평화공존(통일)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자율과 존중 연대를 바탕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평화 위기와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공동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한 초·중·고등학교 3~6학년과 중·고등학교 302학급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전북통일교육센터 지정기관인 (사)전북계대하나와 협력해 운영되며, 지역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평화·통일교육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은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에서는 그림책과 게임을 활용해 평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며, 중·고등학교에서는 토론과 속의 중심 수업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오상근 기자

한국치즈과학고, 유가공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본격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가 지역 유가공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교 측은 27일 총 17억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학생 맞춤형 실습교육 기반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노후 기숙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환경개선사업비 10억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전면 개선했다. 체력단련실과 사위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 최대 9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바이오 실습실을 신설하고 최신 장비를 도입해 실습 중심 교육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화학분석기능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저경력교사 성장 지원 본격... 멘토링 기반 연수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 저경력교사의 안정적인 교직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은 27일 영제교육원에서 ‘2026 저경력교사 필수역량 개발 과정’ 연수 및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과정에는 교직 경력 5년 이하 초·중·고교사와 수석교사 등 19명이 참여하며,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 멘토·멘티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교직 적응을 돕고 필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워크숍에서는 공동체 이해와 협력 관계 형성, 회복적 생활교육을 주제로 관계 중심의 학급 운영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멘토·멘티 협의를 통해 향후 멘토링 운영 계획도 수립했다. 이후 과정은 상담과 소통 교직 적응,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 설계, 수업 나눔 및 코칭, 학급경영 등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멘토링과 수업 컨설팅을 병행해 실제 수업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